



## 폭설의 벨라루스, 역사의 땅을 걷다 (2) 마힐료우,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

고광열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 호로드나에서 마힐료우로

2026년 1월 7일 아침에 호로드나를 떠나 기차로 민스크를 경유한 뒤 다시 기차를 갈아타고 마힐료우(러시아어로는 모길료프)로 향했다. 마힐료우를 이번 여행의 두 번째 목적지로 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 도시를 종종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수도’라고 부른다. 제1차 세계대전 내내 니콜라이 2세가 수도 페트로그라드를 떠나 이곳에 최고사령부, 즉 스태프 카를 두고 지냈기 때문이다. 물론 공식 수도는 아니었지만, 제국의 황제가 머무르며 군령권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런 별칭이 붙었다. ‘소련 제2의 수도’ 사마라(당시 명칭 쿠이비셰프)나 ‘제4의 로마’ 블라디보스토크처럼 비공식적 별칭이지만 그 역사적 무게는 엄연하다. 민스크에서 마힐료우까지는 기차로 약 3시간 거리였는데, 창밖으로 펼쳐지는 벨라루스의 겨울 들판이 내내 흰색 일색이었다. 눈이 이미 상당히 쌓여 있었지만, 곧 더 많은 눈이 오리라고는 그때는 몰랐다.

마힐료우라는 도시 명칭의 어원에 관해서는 확실한 것은 없고 가설과 전설만 여럿 존재한다. 학술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유래는 두 가지다. 첫째는 도시 이름의 기반이 개인명 ‘모길라’라는 것으로, 러시아어에서 접미사 ‘-오프’는 통상 개인명과 결합한다는 점이 근거다. 다만 그 ‘모길라’가 실제로 누구였는지는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둘째는 고대슬라브어에서 ‘모길라’가 오늘날의 ‘무덤’이 아니라 ‘언덕’ 또는 ‘흙더미’를 의미했다는 데서 출발하는 설로, 16~17세기 바르쿨라보보 연대기에서 “1526년에 모길라(언덕) 위에 큰 성채가

세워졌으며, 그 언덕의 이름을 따서 모길료프라 불렀다”라는 기록이 근거다. 이 외에도 여러 설이 있다. 가장 낭만적인 것은 민중 전설로, 마셰카라는 의적이 자신의 연인에게 배신당해 죽임을 당한 뒤 드냐프로강 기슭에 묻혔고, 그 무덤이 ‘사자의 무덤’으로 불리다가 도시 이름이 됐다는 것이다. 벨라루스의 민족시인 안카 쿠팔라가 이 전설을 ‘사자의 무덤’이라는 시로 형상화했을 만큼, 이 이야기는 마힐료우 사람들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된다. 현재 마힐료우의 도시 문장에는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 유래가 어느 설에 근거한 것이든 ‘사자’라는 이미지만큼은 이 도시에 깊이 새겨진 것이다.



마힐료우 기차역 (출처: 저자 제공)

흥미롭게도 마힐료우는 하마터면 벨라루스의 수도가 될 뻔했다. 민스크가 소련-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35km 거리에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벨라루스공산당 지도부는 1937년 스탈린에게 수도를 마힐료우로 옮겨달라는 보고서를 올렸고, 스탈린이 이를 승인했다. 1938년부터 실제 공사가 시작됐다. 민스크의 정부 청사를 본떠 만든 소비에트 청사가 지어졌고, 주거 단지와 문화 시설이 들어섰다. 이전 예정일은 1939년 11월이었다. 그러나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소련이 서부 벨라루스를 합병하면서 민스크가 국경 도시가 더는 아니게 되자, 그해 10월 계획은 조용히 취소됐다. 대신 1941년 독일군이 민스크를 위협하자 벨라루스 정부가 실제로 마힐료우로 피난해 8일간 임시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다. 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된 지 2년만의 일이었다.

## 폭설이 몰아치는 드냐프로강

도착 이튿날에 밤사이 사이클론이 지나갔다는 것을 나중 예야 검색해 보고 알았다. 사이클론 하면 인도양이나 남태평양 쪽에서나 출몰하는 줄 알았지, 이곳 벨라루스에도 나타나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여파로 폭설이 밤새 내렸고, 아침이 되어도 그치기는커녕 더 거세졌다. 눈 때문에 얼굴이 따가울 정도로 바람이 거셌다. 이런 날씨에 관광이라니 싶었지만, 숙소에서 100m 거리에 드냐프로강이 흐르고 타라스 세우첸코 기념비와 ‘국제주의자 병사’ 기념비가 있다기에 일단 숙소를 나섰다.



폭설의 마힐료우 (출처: 저자 제공)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눈에 파묻혔다.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 걸음마다 긴장해야 했고, 눈바람에

시야가 막히고 핸드폰 지도조차 눈보라 속에서 내 위치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마힐료우를 관통하는 드냐프로강을 꼭 보고 싶었다. 드냐프로, 즉 우크라이나어로는 드니프로, 러시아어로는 드네프르라고 부르는 이 강을 이 도시에서 만난다는 것은 내게는 특별한 의미였다. 박사학위 과정 중 이 강의 이름을 딴 도시인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일 년간 머무르면서 거의 매일 이 강을 보며 지냈기 때문이다. 이 강은 흘러 흘러 키이우와 드니프로, 자포리자를 거쳐 헤르손까지 닿는다. 우크라이나에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잠깐 스쳤지만, 눈보라 몰아치는 강바람이 너무 거세서 감상에 잠길 겨를도 없이 재빨리 사진만 찍고 자리를 피해야 했다.



드냐프로강 (출처: 저자 제공)

드냐프로강 바로 옆에서 세우첸코 기념비를 찾을 수 있었다. 타라스 세우첸코(1814~61)는 우크라이나 민족어, 민족 문학의 토대를 놓은 시인으로, 농노 출신임에도 우크라이나어로 시를 쓴 ‘우크라이나의 푸시킨’이다. 마힐료우에 세우첸코의 기념비가 있다는 것은 딱히 특별한 일이 아니다. 소련은 ‘제민족 우애’라는 공식 이념을 내세웠는데, 이는 소련을 구성하는 여러 민족이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기반 위에서 평등하게 공존하고 형제처럼 단결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각 민족의 언어·문화 역사를 소비에트 체제 안에서 인정하고 높인다는 논리였다. 그 구체적 표현 중 하나가 각 민족의 위대한 시인과 사상가의 기념비를 해당 공화국 바깥에도 세우는 것이었다. 세우첸코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의 니자미, 카자흐스탄의 아바이 등의 기념비가 모스크바를 비롯한 여러 소련 도



시에 세워진 것이 그 사례다. 마힐료우의 셰우첸코 기념비도 그런 시대의 산물이었다.



타라스 셰우첸코 기념비 (출처: 저자 제공)



‘국제주의자 병사’ 기념비 (출처: 저자 제공)

‘국제주의자 병사’ 기념비는 더 심해진 눈보라 속에서 현재 위치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 한참을 걸은 끝에 찾을 수 있었다. ‘국제주의자 병사’란 구소련권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자를 가리키는 공식 표현이다.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한 뒤 1989년 철수할 때까지 10년에 걸친 이 전쟁에서 소련군 사망자는 공식 집계만으로도 1만 5천 명을 넘었다. ‘국제주의’라는 수식어는 소련이 이 전쟁을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혁명 정권을 돕는 사회주의적 연대의 실천으로 공식 규정했기 때문에 붙은 것이다. 전쟁이 끝나고 소련이 해체된 뒤에도 이 명칭은 참전자와 전사자를 기리는 공식 언어로 굳어졌고, 구소련권 거의 모든 도시에 이 이름을 단 기념비가 세워졌다. 마힐료우의 기념비도 그중 하나로, 이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다친 마힐료우 출신 병사들을 기리고 있다. 100m 남짓한 거리에서 기념비 둘과 강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데 두 시간 가까이 걸렸고, 숙소에 돌아오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인터넷에서 산 4만 원 짜리 방수 부츠가 실제로 방수 기능을 발휘해 준 것이 천행이었다. 발이 젖었다면 동상에 걸리는 걸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광 광장’, 러시아 제국과 소비에트 권력의 기억이 공존하는 공간**

오전의 혹독한 고생 끝에 숙소에서 쉬는 사이 눈이 멎었다. 바람도 오전보다는 한결 잦아들었다. 오후에 다시 나가

향한 곳은 ‘영광 광장’이었다. 이미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여기도 걸어서 갈 수가 없어서 택시를 불러야 했다. ‘영광 광장’은 드냐프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조성된 공간으로 소련 시기에는 소비에트 광장으로 불렸다.



‘영광 광장’에서 내려다본 마힐료우 시내 (출처: 저자 제공)

광장 한가운데에는 기단 13m, 그 위 여성상 7m, 합계 20m에 달하는 거대한 기념비가 서 있었다. 1982년에 제작된 ‘소비에트 권력을 위해 싸운 전사들에게’라는 이름의 기념비는 높은 화강암 기단 위에 두 팔을 벌려 날개처럼 펼친 여성 청동상이 올라선 형태로 승리의 여신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기단 앞에는 영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양쪽으로는 화강암으로 마감된 석판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혁명, 집단화, 1941년 마힐료우 방어전, 빨치산 운동, 전후 재건 등 소비에트 역사의 주요 장면을 묘사한 청동 부조가 새겨져 있었다. 폭설 이후 내가 가기 이전에 거기에 접근한 사람은 없어 보였다. 눈발을 헤치고 기념비로 나아가니 몇몇 구간에서는 정말로 허리까지 폭폭 빠졌다.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눈이었다. 그래도 눈은 멎어서 시야 확보나 여러 면에서 오전보다는 훨씬 나았다. 기념비 뒤로는 마힐료우 시내와 드냐프로강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구조물이 있었다. 날씨가 나빴지만, 전망 자체는 상당히 훌륭했다. 드냐프로강과 그 지류인 두브라벤카강이 도시의 옛 중심부를 해자처럼 둘러싸며 흐르는 이 지형을 보니 이 도시가 예부터 전략적 요충지가 된 이유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광장 주변에는 두 개의 중요한 역사 표지가 있었다. 하나는 1920년 소비에트-폴란드 전쟁 당시 폴란드군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제35장갑부대 부대원들을 기리는 거대한 명판이었다. 소비에트-폴란드 전쟁에서 붉은 군대는 두 개의 전선으로 싸웠는데, 벨라루스 방면을 담당한 것이 투하첵스키의 서부전선 군이었고 우크라이나 방면은 예고로프의 남서부전선군이였다. 1920년 여름 서부전선군은 민스크와 마힐료우를 거쳐 바르샤바 코앞까지 진격했다가 이른바 ‘비스와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대패를 당했다. 후퇴 과정에서 마힐료우 일대에서도 폴란드군의 추격을 받으며 격전이 벌어졌고, 제35장갑부대는 그 과정에서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보았다. 흐로드나에 이어 마힐료우에서도 같은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된 셈이었다.



스타프카 기념비 (출처: 저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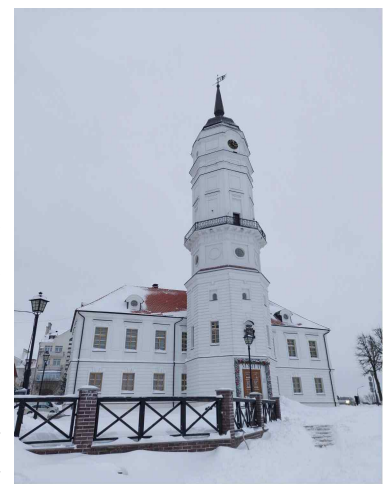
또 다른 하나는 명패였다. 1915년 8월 23일부터 1917년 3월 2일까지 니콜라이 2세가 이끄는 러시아 제국군 최고사령부가 이 광장에 있었다는 내용이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로 나란히 적혀 있었다. 배경은 이렇다. 1915년 봄 독일군의 대공세로 인한 이른바 ‘대후퇴’로 러시아군이 폴란드와 할리치나에서 대규모로 밀려나는 위기 상황에서, 니콜라이 2세는 사촌 니콜라이 니콜라예비치 대공을 경질하고 직접 최고사령관직을 맡았다. 실제 군사 결정의 대부분은 최고사령관 참모장 알렉세예프 장군에게 위임했으나 상징적 결단에 가까웠지만, 그 결과는 심각했다. 황제가 페트로그라드에서 600m 떨어진 마힐료우에 장기간 머물면서 수도의 통치 공백이 심화했다. 황후 알렉산드라가 사실상의 섭정이 되면서 라스푸틴을 둘러싼 스캔들이 황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2월 혁명이 발발하면서 황제에게 등을 돌린 장군들과 두마 정치인들의 압력으로 결국 퇴위가 이뤄졌다. 명패에 새겨진 1917년 3월 2

일은 니콜라이 2세가 퇴위 서명을 한 바로 그날이다. 마힐료우를 떠나 돌아가려다 혁명 세력에 가로막혀 고립된 프스코프의 기차 안에서 말이다.

### 라투샤, 마그데부르크법의 유산

‘영광 광장’ 한쪽에는 마힐료우 시청, 즉 라투샤가 재건돼서 있다. 1577년 스테판 바토리 왕이 이 도시에 마그데부르크법을 부여한 이듬해인 1578년에 최초의 목조 건물로 세워졌다. 마그데부르크법은 중세 독일 마그데부르크에서 발전한 도시 특권 체계로, 자치 행정권·독자적 사법권·상업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중세 중·동부 유럽 도시화의 핵심적 법적 기반이 됐다. 이 법을 도시에 부여한다는 것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합 내에서 그 도시의 지위를 공인하는 의미였다. 흐로드나 역시 마그데부르크법을 부여받은 도시로, 두 도시 모두 이 왕으로부터 각별히 주목받았다

목조 라투샤가 화재로 반복 소실돼 위치까지 바뀌는 일이 거듭되자, 1679년 석조 건물로 재건하기 시작해 1698년에 최종 완공했다. 바로크 양식의 팔각 5층 탑, 높이 46m로 당시 마힐료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1780년에는 러시아 제국의 예카테리나 2세와 신성로마제국의 요제프 2세가 마힐료우에서 화동해 유럽 정세를 논의했는데, 두 군주가 이 탑 전망대에 올라 시내를 함께 조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라투샤는 이후 1708년 대북방전쟁 때 소실됐다 복구됐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다시 심하게 파손된 뒤 1957년 소련 당국에 의해 완전히 철거됐다.



라투샤 (출처: 저자 제공)

다. 벨라루스 독립 후 루카셴코 대통령의 지시로 2007~08년에 재건되어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형 복원이나 창작이나 하는 논쟁이 없지 않지만, ‘영광 광장’의 풍경 속에서 꽤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라투샤 옆에 19세기 후반에 지어진 또 다른 행정 건물은 지금 혼인신고청으로 쓰



이고 있다. 이 광장은 제정 러시아 시기의 건축적 뼈대 위에 소련의 기념물과 벨라루스 독립 이후에 재건된 건물이 어우러진 공간이 됐다.

라투샤 내부는 마힐료우 역사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나선형 계단을 빙글빙글 돌아 올라가면 2층 전시실이 나오는데, 전시 규모는 크지 않다. 마그데부르크법 수여 장면을 재현한 모형이 인상적으로 전시되어, 중세 도시 자치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전달한다. 지하로 내려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 원래 라투샤 지하에는 시 금고와 창고, 감옥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공간에 마힐료우의 역사와 관련된 각종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10세기부터 20세기에 걸친 유물들로 구성된 소장품이 5만여 점에 달한다고 하지만, 실제 전시실은 규모가 아담해서 그중 일부만 볼 수 있었다. 탑 꼭대기의 전망대에서는 드냐프로강과 시내가 한눈에 펼쳐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올라가 보지는 못했다.

### ‘영광 광장’의 건물들과 니콜라이 2세의 운명

‘영광 광장’을 둘러싼 건물들의 운명은 제각각이었다. 18세기 말 이 광장 주변에는 반원형으로 네 건물이 세워졌다. 니콜라이 2세가 거주한 지사 관저, 스타프카 사령부가 들어선 도청, 부지사 관저, 그리고 지방법원 건물이었다. 이 중 지사 관저와 도청은 독소전쟁의 폭격으로 잔해만 남은 채 전후에 철거됐다. 지사 관저 자리에는 지금 영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고, 도청 자리는 광장의 일부가 됐다. 부지사 관저도 1950년대에 철거됐다. 네 건물 중 살아남은 것은 지방법원 건물뿐으로, 현재 마힐료우주 향토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 광장에는 또 하나의 역사 건물이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시청사로 지어진 건물이다. 1917년 소비에트 권력을 선포한 역사적 대회가 열린 곳이기도 하며, 지금은 혼인신고청으로 사용되고 있다. 내가 ‘영광 광장’에 도착했을 때, 라투샤 바로 옆에 있는 혼인신고청 건물 앞에서 젊은 벨라루스군 병사 수십 명이 열심히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군인과 제설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가 싶었다.

‘영광 광장’에 있던, 앞서 이야기한 옛 지방법원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마힐료우주 지역박물관에도 들렀다. 니콜라이 2세와 가족들에 관한 사진들이 상당수 전시돼 있었다. 출처를 확인하니 대부분 모스크바의 러시아연방국립문서고



마힐료우 지역박물관 (출처: 저자 제공)

(GARF)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니콜라이 2세의 마힐료우 생활은 사진 자료로 상당히 잘 남아 있다. 황태자 알렉세이는 1915년 가을부터 아버지와 함께 마힐료우에 머물렀고, 1916년 한 해를 대부분 스타프카에서 보냈다. 딸들도 여러 차례 마힐료우를 방문했는데, 호위도 없이 시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상점에서 쇼핑을 즐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황후 알렉산드라는 마힐료우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방문 시에도 지사 관저에는 묵지 않고 역 인근 전용 선로에 세워진 제국 열차 안에서 지냈다. 니콜라이 2세는 마힐료우 인근 도로를

자동차로 드라이브하거나 숲속을 산책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전쟁의 격랑 속에서도 비교적 조용한 일상을 보낸 이 도시가 결국 제국 마지막 해의 무대가 되었다. 1917년 2월 25일(구력) 페트로그라드의 혁명 소요 첫 보기가 스타프카에 도착했다. 이틀 뒤인 2월 27일 밤 니콜라이 2세는 마힐료우를 떠나 차르



지역박물관 소장 니콜라이 2세 일가 사진 (출처: 저자 제공)

스코예 셀로의 가족에게로 향했다. 그러나 열차는 혁명 세력에 가로막혀 프스코프로 우회했고, 3월 2일 밤 니콜라이는 황제 자리에서 내려왔다.



## ‘스탈린그라드의 아버지’, 1941년 마힐료우 방어전

마힐료우에는 ‘스탈린그라드의 아버지’라는 별칭이 있다. 특정 인물이 붙인 것이 아니라, 이 도시의 1941년 방어전에서 얻은 경험이 이후 스탈린그라드 방어의 전술적 선례가 됐다는 역사적 평가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표현으로, 벨라루스의 역사 서술과 공식 문헌에서 관용적으로 쓰인다. 전국적 동원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1941년 7월 로마노프 소장이 이끄는 172보병사단을 중심으로 정규군과 민병대가 힘을 합쳐 독일군의 포위 속에서 23일을 버텼다. 그중 16일은 완전한 포위 상태였다. 방어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25km에 달하는 대전차 참호를 팠고, 12,000명의 시민이 민병대에 자원입대했다. 방어전 기간에 독일 전차 179대가 격파됐으며, 독일 중앙집단군의 모스크바 방향 진격이 지연되어 소련이 방어선을 재정비할 귀중한 시간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시가전 방어 경험이 훗날 스탈린그라드에서 활용됐다. 폭설에 뒤덮인 ‘영광 광장’을 건다가 이 이야기를 떠올리니, 이 도시가 소화해 온 역사의 무게가 새삼 다르게 느껴졌다.



마힐료우 출신 소련 영웅들 (출처: 저자 제공)

1941년의 방어전을 기리는 기념 단지는 도시 외곽 부이니치 들판에 별도로 조성되어 있다. 내가 이번에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이 장소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얹혀 있다. 소련의 저명한 중군작가이자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저자 콘스탄틴 시모노프가 1941년 7월 13~14일 이 전선에서 중군기자로 활동하며 전투를 목격했고, 1979년 8월 28일 사망하면서 자신의 유해를 바로 이 부이니치 들판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소련 당국은 시모노프를 모스크바 노보데비치

묘지에 안장하려 했지만, 가족은 이를 거부하고 유언대로 집행했다. 아들 알렉세이가 들판에서 직접 유골함을 열어 아버지의 재를 뿌렸다. 이듬해인 1980년 들판 한쪽에 15t짜리 화강암 돌이 놓였고, 그 뒷면에는 이런 비문이 새겨졌다. “그시모노프는 평생 1941년의 이 전장을 기억했으며 이곳에 자신의 유해를 뿌려달라고 유언했다.”

독소전쟁 당시 마힐료우의 운명은 특히 비극적이었다. 1941년 7월 26일 독일군에 함락된 후, 이 도시는 고위 SS 및 경찰 지도자 에리히 폰 дем 바흐의 관할 아래 놓였다. 전쟁 전 마힐료우에는 약 1만 9,700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 점령 직후부터 체계적인 박해가 시작됐다. 1941년 8월 13일 게토 설립 명령이 내려져 유대인들이 두브라벤카강 기슭의 좁은 구역에 철조망으로 격리됐고, 이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이송 과정에서만 113명이 즉결 총살됐다. 같은 해 10월 2~3일 아인자츠코만도와 경찰부대가 집행한 제1차 대학살에서 2,073명이, 10월 19일의 제2차 대학살에서 3,726명이 도시 외곽에서 총살됐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하인리히 힘러가 직접 마힐료우를 방문해 유대인 279명의 처형 현장을 목격했다. 마힐료우는 홀로코스트 역사에서 또 다른 의미로도 기억된다. 1941년 9월 아르투어 네베의 지휘 아래 인근 정신병원 환자 500명 이상을 자동차 배기가스로 살해하는 실험이 이 도시에서 이뤄졌고, 이 방식은 이후 절멸수용소의 가스 살해 방법 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마힐료우에 절멸수용소를 설치하려는 계획도 존재했으나 결국 실행되지 않았다. 야드 바셈의 추산에 따르면 마힐료우 게토에서 희생된 유대인은 약 1만 명에 달한다. 1944년 6월 28일 붉은 군대에 의해 해방됐을 때, 도시 인구는 전쟁 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 제국의 마지막 수도를 떠나며

호르드나에서 마힐료우까지, 네만강에서 드냐프로강까지, 1920년의 소비에트-폴란드 전쟁 전장에서 1915~17년의 스타프카까지. 이번 여정은 짧은 시간에 벨라루스의 역사 지층을 여러 방향으로 횡단하는 경험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나는 벨라루스의 서북쪽 끝 호르드나에서 동쪽의 마힐료우까지를 가로질렀다. 같은 나라 안에서 이렇게 끝과 끝에 있는 두 도시를 연속으로 방문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한 선택이었다.

마힐료우는 처음에는 특색을 찾기 힘들지도 모른다. 호로



드나처럼 중세 건축 유산이 화려하지도 않고, 민스크처럼 소련 건축의 장엄함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폭설 속에서 무릎과 허리까지 빠져가며 걸어 다니다 보니, 이 도시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역사를 품고 있음을 느꼈다. 이름의 기원조차 불분명한 채 전설과 가설만 무성한 도시의 내력, 수도가 될 뻔했다가 아닌 채로 남은 역사, 1920년 소비에트-폴란드 전쟁의 격전지, ‘스탈린그라드의 아버지’라 불린 1941년의 방어전, 러시아 제국 최후의 지휘부가 있었던 ‘영광 광장’, 그 광장에서 이뤄진 두 군주의 회동, 자녀들을 데리고 이 도시에서 마지막 평온한 일상을 보냈던 니콜라이 2세, 점령기에 1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게토의 역사.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도시 안에 쌓여 있다.

1월 10일 아침, 마힐료우를 떠나면서 택시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했다. 밤새 더 내린 눈이 아직 치워지지 않아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갈 수 없었다. 평화 대로의 레닌 광장을 지나갈 때 창밖으로 마힐료우주 집행위원회 건물 앞에 레닌 동상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마힐료우주 집행위원회 건물은 앞서 말했듯 1930년대 말 수도 이전 이후 벨라루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청사 선물로 쓰일 예정으로 지어진 것이라 대단히 웅장해 보였다. 여기도 원래 방문 계획에는 있었지만, 폭설 때문에 도저히 올 수 없었던 곳이었다. 마지막 러시아 황제가 머무르던 제국이 종말을 맞이한 도시에, 그 황제를 대체하고 역사 속으로 밀어 넣은 혁명가의 동상이 있다는 것이 기묘하게 어울렸다. 물론 레닌과 이 도시 사이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저 소련의 어느 도시에나 설치된 레닌 동상이 마힐료우에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국의 기억과 혁명의 유산이 마힐료우에서 교차하는 풍경은 마힐료우를 떠나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